

농약잔류량 우려할바 안돼

환경청·농진청 공동조사 전국 51개 지역서 실시

外國 잔류량 보다 훨씬 적어

우리나라의 토양이나 玄米중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량이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토양이나 농작물 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청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동안 전국 51개 지점의 토양과 농작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BHC 등 유기염소계 농약 7종, 다이아진은 등 유기인계 농약 8종과 중금속 4종(카드뮴, 수은, 비소, 구리)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토양 및 玄米 중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량을 조사한 것으로 잔류량이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외국에 비해서도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

음에도 농약 잔류량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잔류농약 사용기간은 약 16년으로 日本의 26년, 美國의 35년에 비하여 10~20년이나 사용기간이 짧고 ▲잔류성이 높은 유기수은계 및 유기염소계 농약의 사용율 69년과 79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시켰으며 ▲농약잔류 허용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인 농민에 대하여 사용시기와 사용시기는 중점 지도하는 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병행하여 환경청은 울산공간 및 구로포단 등 20개 지점에 대해 카드뮴, 비소, 구리, 수은 등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로서는 오염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